

대선·총선 대비 불교정책기획단 출범

불교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할 '불교정책기획단'이 출범했다.

6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발대식을 개최한 불교정책기획단은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과 불교인재개발원장 김승철 교수가 공동단장을 맡는다.



6월 26일 출범한 불교정책기획단은 이날 1차 정책기조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불교정책기획단은 올해 열리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교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불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김의정)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기획단은 자문위원과 정책특보, 정책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불교정책 조사·연구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불교정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 수립·평가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오는 9월까지 △불교관계법 및 제도 개선 △국제사회·환경·생태 △문화·문화재정책 △남북불교교류 △미디어 △사회·복지 △교육의 5개 분야별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 내용은 정책 보고서로 발간해 대선후보자들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내년 3월에는 총선을 겨냥해 각 정당별·후보별 불교정책 보고서 작성과 정책토론회 개최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불교 발전 중·장기 정책 연구개발 활동 시간·인력 부족문제 해결 과제로 남아...

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전문 인력이다.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하기에 남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특히 9월 말까지 5차례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보고서 작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은, 자칫 정책 토론회 '결할기식'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진다.

않은 문제다. 현재 5개 분야 정책 과제 연구를 책임질 선임연구원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불교 관련 법령, 남북불교교류, 환경, 복지, 문화재 등 연구 분야가 광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시간이나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넓은 안목으로 불교계 전반적인 현안을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단장 승원 스님은 "단기적으로는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불교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상시적인 불교정책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발대식에 이어 열린 제1차 정책기조세미나에서는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차장이 '사상·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불교현황과 방향'을, 김영국 조계종 정책특별보좌관이 '정책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불교현황과 방향'을 주제 발표했다.

여수령 기자 snyoo@buddhapia.com

'신계사 단청공사 보고서' 발간

'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공동으로 2006년 4월부터 진행한 금강산 신계사 단청복원 사업은 약 90 일간에 걸쳐 대응보전 단청복원 사업 전 산신각 등 4동을 대상으로 2억 1천만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됐다.'

조계종 신계사복원추진위원회가 6월 26일 발간한 <신계사 단청공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남북 간의 단청문화 교류를 위해 남북 단청장들이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해 완공한 대응보전 단청복원 사업에 대한 단청복원 작업과정 등을 담았다. 또한 김준웅 단청장(총무원문화재 단청장 33호)은 남북 단청 용어와 기법상의 차이에 대해 보고서에 별도의 논고를 실었다.

김주일 기자

"총장·이사장에 책임 물어야"

이사장윤 스님 기자회견담화

<1면에서 이어>

또한 장윤 스님은 "신 교수가 자신의 것이라고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도 실제로는 버지니아대에서 81년 세말타노티시카르마 씨가 취득한 박사논문과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논문표절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윤 스님은 두 논문의 복사본 일부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논문 복사본의 내용은 확인결과 거의 일치했다.

장윤 스님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엄격한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한 인사 채용을 감행한 흥기삼 전 총장과 학위를 허위로 확인해 준 이상일 학사지원

본부장. 이 문제를 묵인 방조한 영영교 총장 및 이사장 영배 스님 등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6월 29일 한국방송 보도가 나온 직후 본사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박사학위 논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하지만 신 교수가 예의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장윤 스님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7월 2일 오전 10시 이사장실에서 영배 스님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 학교측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29일 전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사찰 재정 관리 시스템 '구멍'

김승철 중앙승가대 교수 '종단사찰 결산액 분포 분석'

조계종 사찰 재정 보고 및 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사찰은 결산액을 종단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고한 결산액 또한 신빙성에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김승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가 6월 28일 열린 '종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위원회(위원장 조계)' 3차 모임에서 발표한 '종단 사찰 결산액 분포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체 사찰사찰 중 277개만 결산액을 보고했다.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각 사찰 사업에서 결산액을 종단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오는 왜곡 현상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자료의 신뢰성 부족으로 예결산서만으로는 사찰 등급을 조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감과 사실사찰의 예결산 지침을 제시하고 준수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종무원이 있는 사찰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 지침을 하달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찰사찰 18.7%만 결산액 보고

보고된 결산액도 '신빙성' 문제

조계종 총무원이 2006년 6월 발표한 '2006년도 종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전체사찰 2368개 중 사찰사찰은 1485개였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 사찰사찰 18.7%만이 종단에 결산액을 보고한 것이다. 2005년에도 공할 744개 중 23.9%(178개)가 종단에 결산액을 보고하지 않았다.

2005년 기준 결산액이 1억원 이상 사찰사찰은 39개였다. 이 가운데 농어촌 지역이 38.5%(15개)로, 대도시 지역 33.3%보다 높았다. 5000만원 이상도 농어촌 지역이 49.1%(28개)로, 대도시 지역 22.8%(13개)보다 많았다. 이는 사찰의 규모 차이에서

성실한 보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찰의 공식 통장을 지정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위치한 표본 사찰을 선정해 재정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인정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분담금 납부 실적을 종보지에 공개하고 각 사찰과 신도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또 일부 직영사찰이나 특별분담 사찰 일부를 제외하고는 "종단 분담금이나 예산액을 공개하고 기여도를 평가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올 해의 장학승 선발

조계종 교육원은 종단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해 2007년 해의 장학승을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장학금 신청서, 수행이력서, 대학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보고서, 재학 중인 학교의 불교학 관련 전체 교육과정 등을 교육원(02-2011-1800-3)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고서 주제는 자유.

전형은 서류 및 보고서 심사도 이뤄지며, 올 10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제7회 창작찬불가 공모

조계종 총무원이 제7회 창작찬불가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합창·독창·가요·동요·랩·명상음악 등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찬불가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참가 작품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총무원 문화부로 접수하면 된다. 예선은 9월 15일, 본선경연은 10월 30일 열린다. 대상 1작품에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며 총 8개 작품에 66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02)2011-1770 김주일 기자

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 취임

대한불교 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이 6월 23일 취임했다.

정관 스님은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봉행된 취임법회에서 "총무원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종단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신하 각 사찰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종도간 결속력을 강화해 종단의 위상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선종 산하 사찰 스님들과 지역인사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성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인터불고호텔과 협천해인사 등지에서 열렸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지관·미야바야시 아끼히코)가 주최한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한일교류협회 이사장 흥파 스님, 미야바야시 아끼히코 스님 등 한일 불교계 25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에서 '고려대장경 조성의 정신'을 주제로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이, '대장경에서 배우다'를 주제로 일본 불교대학문화부 마즈다가 치카키 교수가 각각 주제발제를 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타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이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식지사 : (051)632-008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 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량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영상, 강의 및 법문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前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영상학강사) ■문의 : 02-2004-8279

경봉대종사 제25주기 추모법회

경봉대종사 추모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불기 2551(2007)년 7월 11일(음. 5. 27) 수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무량수전

문 의 | 055-382-7083

영축총림 방장 원 명
 극락호국선원장 고 원
 경봉문도회장 원 산

경봉대종사 제 3회 정기총회 | 추모법회 이후 오후 1시 극락암 무량수전에서 열립니다.

2007년도 경봉장학회 선발공고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는 2007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박	사	1명
석	사	8명
학	사	18명
통도사	강원	8명
선	원	3개소

※ 장학금 수여식이 경봉대종사 제25주기 추모법회에서 봉행되오니
선발된 장학생은 추모식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 이사장 원 명